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 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자회견문

어제 오후 이재명 후보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환님과 통화했습니다. 이예람 중사 아버님은 이재명 후보에게 특검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조적 성폭력과 덮어주기로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가던 군을 바꾸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이러한 구조적 성폭력, 성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재명후보와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2021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2차 가해로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였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위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가 2019년, 2020년 2번의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조직이 나를 버렸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억울함을 절규한 후에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행해졌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지기는 커녕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의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한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공군은 사건을 덮기 위해 국방부에 허위 보고 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후 6개월에 걸친 피의자에 대한 재판 결과는 피해자 유족과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수사과정에서도 군사경찰, 군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등이 사건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초동수사와 고의적인 늦장수사

로 사건을 밝혀내기는 보다는 무마하려고 하던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은 자기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가해자는 법망을 피해 나갔습니다. 결국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이예람 중사는 아직도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습니다.

재판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이예람 중사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전후로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부터 진실을 확인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2022. 3. 4. 국회의원 김용민, 강민정, 김승원, 김의겸, 민형배,
양이원영,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장철민, 최혜영, 홍정민